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4470호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뉴스]
한국전쟁 70년
삼성 반도체 진출 등
현대사 이슈 빅3
02

Economy

코스피 2141.32 (0.00)
코스닥 742.03 (0.00)
금리(국고채 3년) 0.844 (+0.002)
환율(원·달러) 1209.60 (+1.60) 〈19일〉

공유주방 강화, 맞춤형 음식 대세
HMR·1인용 식품 시장 새 격전지

푸드테크 기획 ***코로나, 밥상 문화를 바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밥상 문화를 크게 바꿨다.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던 사람들이 식탁 앞으로 모여들었다. 빠른 배송, 가정간편식은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코로나19는 면역력 강화, 로봇 바리스타, 무인 편의점과 같은 식품 산업의 변화를 10년 이상 앞당기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경험할 먹거리의 변화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집에서 가정간편식을 즐기는 이가 늘어나가 업계에서는 공격적으로 다양한 HMR을 출시하고있다. /풀무원

〈上〉 집에서 혼밥먹는 사람들

코로나發 소비 행태 변화
집콕·언택트이코노미 대세
외식 대신 내식 선호 현상
업계 HMR 등 시설투자 강화

식문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수저를 휘저으며 찌개 및 반찬을 나눠 먹는 식사방식을 '한국식 정(情)'으로 미화하기 힘들어졌다. 코로나19사태로 외식(外食) 대신 내식(內食)을 선호하는 추세가 생기더니, 급기야는 1인용 제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단순한 1인용? No!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1인용 메뉴 판매와 프라이빗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반면, 뷔페를 비롯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외식이 외면받는 모양새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지난 5월 1인용 빙수를 내놨다. 판매된 전체 빙수 판매량 중 1인용 빙수가 약 40%를 차지하는 등 인기 가도를 달렸다. 뷔페 수요가 크게 감소하자 문을 닫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삼양F&B는지난 2006년 인수한 뷔페형 패밀리 레스토랑 세븐스프링스 매장을 모두 닫기로 했다.

이러한 소비 행태의 변화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1인 가구 증대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소비 증대가 이뤄지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그 경향에 가속도를 붙인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한 대용식에 머물렀던 HMR이 3~4인 가구도 훌륭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홈다이닝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제2의 제3의 팬대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집콕이코노미·언텍이코노미는 이제 대세다. 모든 것이 배달되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다. 공유주방이 점점 강화하면서 '자기 맞춤형 음식'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팬대믹 시대에서 뷔페식 레스토랑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식당도 4인을 비롯해 소수를 위해 분할한 구성으로 변화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만나며 식사하는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자아실현형 F&B시장'이 만들지게 된다는 의미다. 〈2면에 계속〉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년대 마지막 일식

2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해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일식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2020년 단 한 번의 부분일식은 이날뿐이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다음 부분일식은 2030년 6월 1일이다. /뉴시스

社告

메트로미디어 '제2회 FFTK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푸드테크 미래 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전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먹거리와 식품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식품업계는 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오는 6월24일 서울 서소문 LW컨벤션 그랜드홀에서 '2020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0)'를 개최한다.

올해 두번째 열리는 FFTK2020은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가제)'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선도할 혁신기업을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연구개발(R&D) 센터장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자신이 경험한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 변화와 미래식품 개발을 위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그의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행사명** : 2020 Future Food-Tech Korea(FFTK 2020)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
■ **일 시** : 2020년 6월24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서소문 LW컨벤션 그랜드홀(2호선 충정로역)
■ **주요 프로그램**
-개막식
-기조강연 :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R&D센터장
-세션강연 :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대표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
김혜연 엔씽 대표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
-문의 및 참가신청 :
(02)02-6020-6833, 이메일 : spring@acres.co.kr
■ **참가비** : 11만원(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 단 학생증 지참)
■ **주최** : 메트로미디어
■ **주관** : (주)에이커스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metro®

'환매중단' 옵티머스펀드, 대부업 사채에 투자

판매사에 만기상환 연장 요청
자산 편입 위·변조 의혹까지
사모펀드 운용 감시장치 필요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규제가 거의 없는 사모펀드의 이점이 불투명한 운용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매사는 자산운용사 서류의 위·변조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사모펀드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에도 적절한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투자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17일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 펀드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 펀드의 만기상환을 연장해 달라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에 요청했다.

환매 연기 금액은 NH투자증권이 217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68억원으로 총 385억원 규모다. 다만 관련 업계에선 해당 상품의 구조를 고려할 때 만기가 남은 후속 펀드들도 줄줄이 환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운용의 펀드들은 주로 6개월 만기로, 목표수익률은 연 3~4% 수준이었다.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옵티머스크리에이터펀드는 편입 자산의 95% 이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소개됐지만 실상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 공공기관 매출 채권과 무관한 사채를 일부 자산으로 편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가 자산 편입 내역을 의도적으로 위·변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옵티머스운용 측은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확인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이 위조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

마힌드라 "쌍용차 지분매각 안해"

유상증자 통해 지원 가능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새로운 투자자 확보를 통한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높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새로운 투자자가 마힌드라그룹 지분 인수 대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새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들어오고, 자연히 75%에 달하는 마힌드라 지분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투자자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마힌드라의 지분을 인수하기 보다 유상증자를 통해 쌍용차에 신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은 쌍용차로 들어온다. 마힌드라가 자금을 회수해서 떠나고 쌍용차가 9년 만에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마힌드라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지분을 매각할 계획은 없고 회사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작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니시 샤 마힌드라 부사장이 새로운 투자자가 원한다면 지분을 넘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